

HEADLINE NEWS

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스마트 버스’ 도입 (L.A.)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첨단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 버스’ 도입을 추진중이다. 시의 대중교통 운영기관 ‘Metro’가 추진하는 「첨단교통운영시스템 (Advanced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이라는 이 사업은 승객의 안전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간의 실시간 통신과 각종 자료의 실시간 활용을 통해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승하차 인원 집계시스템’, ‘음성 및 데이터 전송 시스템’, 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위치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요원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이다. 또한, ‘Metro’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장착하여 차량 유지 관리 비용의 절감과 승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Metro’는 이러한 사항이 모두 시행될 경우, 연간 240만달러에 이르는 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www.metro.net/news_info/publications/images/metro_quarterly_summer04.pdf)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살 만한 지역 중심 만들기」 프로그램의 지속적 전개 (애틀랜타)
- ② 학교 신설과 지역개발의 연계에 관한 워크숍 개최 (애틀랜타)
- ③ 효율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도시재생계획 추진 (오사카)

도시환경

- ④ 환경산업이 고용창출에도 효과적 (미시간주: 랜싱시)

도시교통

- ⑤ 「대중교통지향적인 도시개발 보고서」 출간 (미국)
- ⑥ 버스 내에 승객 편의를 위해 텔레비전 설치 (솔트레이크시티)
- ⑦ 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 제정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
- ⑧ “자동차 없는 날” 행사 실시 (캘리포니아주: 오كل랜드시)
- ⑨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교통사고 정보 제공 (캔자스주: 토피카시)
- ⑩ 일반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테러대비 훈련 실시 (워싱턴 D.C.)

행재정

- ⑪ 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점에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시카고)
- ⑫ 전자정부 순위 발표 결과 덴버시가 1위 (미국)
- ⑬ 대도시권의 경쟁력과 거버넌스의 관계에 관한 논문 발표 (미국)

① 「살 만한 지역 중심 만들기」 프로그램의 지속적 전개 (애틀랜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대도시권의 광역계획 기구인 'ARC(Atlanta Regional Commission)'은 최근 「살 만한 지역 중심 만들기(LCI; Livable Centers Initiative)」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정부 및 시민단체로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지역 중심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중심지 개발을 위해 매년 1백만달러를 지원해왔다. 市는 지역 중심지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개발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지역 중심지 내에 주거시설의 확충과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해 왔으며, 실제로 지난 4년간 362건의 건전한 개발 사업을 지원해왔다.

(www.atlantaregional.com/qualitygrowth)

② 학교 신설과 지역개발의 연계에 관한 워크숍 개최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 대도시권의 광역계획 기구인 'ARC(Atlanta Regional Commission)'는 학교 신설과 지역개발의 연계에 관한 워크숍을 곧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공립학교 신설시 학교 위치와 건물디자인의 선정이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역 관계자들에게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ARC'는 이번 워크숍에서 지역내 새로운 개발계획이나 공원, 운동시설 등 휴양시설의 설치가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최근 미국 전역의 학교 설립 경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www.atlantaregional.com/communitybuilding/schoolworkshop.PDF)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③ 효율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도시 재생계획 추진 (오사카)

일본 오사카市の 도시경영회의는 오사카항을 “수퍼중추항만”으로 지정함으로써 물류의 효율화와 환경 친화를 꾀하고, 동시에 항만지역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운송수단의 전환(modal shift)’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최근 계획했다.

이 계획은 주요 운송수단을 현재의 트럭에서 환경피해 부담이 적은 해운과 철도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트럭이 배출하는 지구온난화가스의 저감에 의한 환경부하 경감과 장거리 일괄대량운송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8/month/index.htm#month1)

④ 환경산업이 고용창출에도 효과적 (미시간州: 랜싱市)

미국 미시간州에서는 환경산업과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투자와 프로그램이 고용창출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州의 노동 및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Labor and Economic Growth)에 따르면, 환경산업은 미국전역에서 2003년에만 약 5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州에서 환경산업과 연관된 고용자수는 약 217,000명으로 전체 고용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州는 환경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www.kansascity.com/mld/kansascity/business/9774499.htm)

5 「대중교통지향적인 도시개발 보고서」 출간 (미국)

미국 ‘교통연구위원회(TRB;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는 「미국의 대중교통지향적인 도시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경험, 도전, 그리고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교통과 토지이용의 연계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버클리대학의 로버트 세베로 교수와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에 TOD의 이론과 실제 적용사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TOD와 연계한 도시개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TOD가 재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TOD의 잠재적인 혜택, 그리고 TOD 디자인 원칙과 특징 등이다. 보고서는 TRB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trb.org/news/blurp_detail.asp?id=4060)

6 버스 내에 승객 편의를 위해 텔레비전 설치 (솔트레이크시티)

미국 유타州的 솔트레이크시티와 그 주변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UTA(Utah Transit Authority)’는 버스 내에 승객 편의를 위해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계획을 최근 추진하고 있다. 방송 내용은 오전에는 뉴스, 날씨, 스포츠 위주로, 오후에는 만화, 드라마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버스정류장 사전 안내도 포함할 예정이다.

‘UTA’는 텔레비전 방송 운영비를 광고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일정 수익의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버스 탑승시간 동안 승객의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TA’는 우선 1개 노선의 버스 2대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면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deseretnews.com/dn/print/1,1442,595092186,00.html)

7 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 제정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통학버스 및 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을 최근 승인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보고된 교통 사고의 25~30%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예외적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혹은 업무와 관련된 전화 통화는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州정부가 2005년부터 이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 주는 애리조나주와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미국 내에서 3번째로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지역이 된다.

(www.wirelessweek.com/index.asp?layout=document&doc_id=135736&verticalID=34&vertical=Business+and+Finance&industry)

8 “자동차 없는 날” 행사 실시 (캘리포니아주: 오كل랜드市)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كل랜드市는 “자동차 없는 날(International Car Free Day)” 행사에 조만간 동참할 계획이다. 이 행사가 실시되는 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내 중심가의 일부지역에서 자동차 통행이 통제되고, 자전거나 보행전용으로 바뀌게 된다.

“자동차 없는 날” 행사는 1997년 프랑스 La Rochelle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보편적인 행사로 이미 자리잡았다. 미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위스콘신주 매디슨市, 조지아주 디케이더市, 오리건주 포틀랜드市 등에서는 1년에 1번씩 이러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hronicle/archive/2004/09/23/BAGLG8TEG01.DTL)

9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교통사고 정보 제공 (캔자스州: 토피카市)

미국 캔자스州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캔자스 도로순찰대(Kansas Highway Patrol)’가 운영하는 이 온라인 서비스는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인명피해, 사고종류 등을 일반시민 및 언론매체에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의 전화 건수를 줄여, 응급상황 대처에 주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도로순찰대에 접수된 교통사고에 한해서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기타 지방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추후에 자료를 추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www.govtech.net/news/news.php?id=91378)

10 일반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테러대비 훈련 실시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의 ‘WMATA(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portation Authority)’는 일반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열차관련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곧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테러대비 훈련은 교육을 희망하는 지원자에 한해 실시될 예정이며, 지원자들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승객들을 도와 지하철 터널 등지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 등을 배우게 된다. 이 교육을 위해 ‘WMATA’는 자체 개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이다.

‘WMATA’는 이러한 훈련이 테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화재 발생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MATA’는 이 외에도 유사시 지하철 터널, 열차, 전철역사 등지에서의 대피요령을 담은 교육용 영상물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www.metro-magazine.com/t_newspick.cfm?id=9059107)

④ 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점에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범죄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市전역의 주요 지역에 250여대의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을 최근 발표했다. 市의 이러한 계획은 근본적으로 시민의 안전 향상과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다양한 정부 부서에 의해 市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의 체계적인 네트워킹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市는 이를 위해 새로운 응급상황 관리 통제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市에 따르면, 앞으로 설치할 감시카메라는 특별히 훈련된 요원에 의해 모니터링될 예정이며, 2006년 봄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egov.cityofchicago.org/city/webportal/portalContentItemAction.do?blockName=Mayors+Office%2fI+Want+To&channelId=0&programId=0&entityName=Mayors+Office&topChannelName=Dept&contentOID=536914254&Failed_Reason=Session+not+found&contentTypeName=COC_EDITORIAL&com.broadvision.session.new=Yes&Failed_Page=%2fwebportal%2fportalContentItemAction.do&context=dept)

④ 전자정부 순위 발표 결과 덴버市가 1위 (미국)

미국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 공공정책학과의 연구자들은 미국 7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정부(E-Government) 순위를 최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콜로라도州 덴버(Denver)市가 2003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샌디에이고市, 뉴욕市,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市가 상위 5위 안에 포함되었다. 전자정부의 평가기준은 市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온라인 이용가능성, 시민들과 市정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장애인과 비영어권 외국인들의 정보접근성 등이다. 구체적인 평가기법과 연구결과는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다.

(www.governing.com/articles/9ciegov.htm) (www.insidepolitics.org/egovt04city.html)

대도시권의 경쟁력과 거버넌스의 관계에 관한 논문 발표 (미국)

대도시권의 경쟁력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관계에 관한 논문이 미국 학술지 ‘Urban Affairs Review’ 최근호에 소개되었다. “대도시권지역 거버넌스의 수평적·수직적 측면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 따르면, 대도시권 거버넌스가 장기적으로 대도시권 경제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문에서는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거버넌스 유형들을 소개하고 있다.

(www.planetizen.com/news/item.php?id=14462; <http://uar.sagepub.com/>)